



아르헨티나 돼지 산업, 2025~2032년 전략 계획 발표

2025년 5월 15일/ 아르헨티나 돼지 협회/ 아르헨티나.

<https://www.porcinos.org.ar>

2025년 5월 20일 (2일 전)

아르헨티나 돼지 연합(FPA)은 2032년까지 국가 돼지고기 공급망 전체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돼지 계획 2025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업계 리더들의 참여로 수립되었으며, 대외 무역, 보건, 소비 진흥, 그리고 조세-재정 체계라는 네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FPA 회장이자 카바냐 아르헨티나(Cabaña Argentina)의 총괄 매니저인 다니엘 페놀리오(Daniel Fenoglio)는 해당 기관의 전무이사인 아구스틴 세하스(Agustín Seijas)와 함께 업계의 현 상황과 직면한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페놀리오는 FPA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아르헨티나 양돈 생산자 협회(AAPP)의 직속 후신이라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FPA는 전국 도축량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상공회의소, 기술 협회, 그리고 비 지역 단체들 간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PA는 장기적인 공공 정책을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하며 통합된 양돈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FPA는 APPORSAFE, CAPPCOR, CAPPER, CEPBA, PORMAG, GITEP 등의 단체들을 그룹화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주요 협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FPA 대표는 "FPA는 위생, 홍보, 금융, 그리고 대외 무역 분야에서 업계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안들을 추진함으로써 당국에 대한 주요 협상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32년 목표

2032년 PEP에 제시된 목표는 야심 차다. 번식용 모돈 55만 마리 확보, 170만 톤 생산, 30만 톤 수출, 그리고 1인당 소비량 28.3kg/인구/년 달성이다. 이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며, 총 활동 규모는 77억 6천만 달러, 수출 규모는 4억 6천 4백만 달러, 그리고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 이상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 무역과 관련하여 아구스틴 세하스(Agustín Seijas)는 아르헨티나가 39개의 개방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브라질의 경쟁 압력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략 시장에서 부산물 수출을 강화하고 돼지 도체 통합의 병목 현상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수입 증가(그중 95%가 브라질산)와 이로 인한 지역산 돼지고기 통합, 특히 이웃 국가에서 부산물로 간주되는 돼지 목살 판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

한 중국 시장 개방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건과 관련하여, 국가는 해당 부문의 주요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SENASA 및 농업부와 협력하여 아우제스키 바이러스 박멸에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세이하스는 "국가 위생 기관의 설립은 프로그램의 영토 내 이행을 보장하고 위생 추적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돼지고기를 접근성 높고 건강하며 품질 좋은 대안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 캠페인도 예상되며, 미식, 영양, 그리고 식생활 교육 분야에서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는 "우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고 아르헨티나 돼지고기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맛있고 건강하며 다재다능한 돼지고기죠."라고 말했습니다.

세무 및 금융 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업에 맞는 신용 한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자는 투입재에 대해 21%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10.5%만 회수하여 각 투자 건당 최대 19%의 비용 초과가 발생합니다. 세이하스는 "양돈 산업의 역학 관계에 맞춰 조건, 금리, 유예 기간을 갖춘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농장을 현대화하고 기술을 도입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전략적 돼지 계획 2025는 생산, 학계, 정부 부문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기술적, 정치적 합의로, 돼지 사육 산업을 국가의 지속 가능한 개발 엔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